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78호
7월 31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하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8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민국총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제68차 총회 제26회 임원회

대면예배금지는 폐쇄와 마찬가지로

예배시 감염자 없어, 방역내세워 교회에 비대면예배 강요안돼 교묘하게 포장된 평등법, 동성애법 저지



신재환 목사
대행사 총장
세종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환 목사) 제68차 총회 제26회 임원회가 지난 7월 28일(수) 오후 2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열린 통합 동영상 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의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환 목사의 인도로 채무 한순남 목사의 기도, 총회장 신재환 목사의 설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 기도, 총무 이경진 목사의 마무리기도, 부총회장 정 의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환 목사는 창설 22-26 임원회를 본분으로 한 설교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환 목사 주례로 사기 정경진 목사의 회임절명, 의장 신재환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 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2021년도 목사고사자가 지난 6월 28일(월) 방역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던 끝에 이뤄져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총회에서 안전 하게 처리됐음을 알리고 후속과정 처리 후 목사인수 일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1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재차 알렸다.

2021년도 목사고시일정은 21년 8월 30일(목)까지 목사고시서류를 접수 마감하며, 9월 9일(목) 서류심사, 9월 30일(목) 오리엔테이션, 목사고시일은 2021년 2월 7일(월), 8일(화) 치르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이어 채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감관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은 의 사항으로 교회간담 청원, 교역자전환청원 청원, 교회 주순보전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임원회에서는 정부 방역 당국의 교회에 대한 비대 면예배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교회에 방역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저지속



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면예배 금지는 교회 폐쇄 조치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방역규제를 철폐하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해 교회별 감염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동성애법 등 각종 입법 및 3차대정안이 결코 통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사문구 협의회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임원회에서의 기념촬영 장면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히 2:1-4)



조승욱 목사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외 우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한 것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 있는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신분으로 전락되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원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 지옥행방에 처하게 되는 데, 인간은 지옥행방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는 말씀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마귀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한 것이 합당합니다.

셋째, 구원을 등한히 여겨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 받게 되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함께 지옥행방에 처하게 되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가장 아리송하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할 나위 없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등한히 여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 할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후 할라 때 내리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 할라 때 내리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들을 받들었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것들 교리와 교훈을 받아들이어서 "후 할라 때 내리랴" 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탄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혼잡하지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은 화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라면서 "후 할라 때 내리랴"고. 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 정병 영영히 함께 복된 삶을 나누는 상생의 행위입니다.

둘째,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징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내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가만히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행하여 대해서는 일정한 정교가 주어집니다. 예 22:18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않는 '이같이 큰 구원'을 얻기 위해 가만히 행하여 증거를 받기 위하여는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부요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은혜와리교회)

정부의 무차별 대면예배금지 강력 규탄, 예배회복

예자연, 부산 세계로교회서 임시총회 및 규탄대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 외, 이하 예자연)는 지난 7월 20일(월)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 임시총회 및 규탄대회를 열고 방역당국의 근거 없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 예배에 대한 무차별 예배금지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예자연은 최근 성경, 장기 지역 몇몇 교회들과 함께 대면예배 전면금지 집결금지 가처분 을 신청, 대 면예배 전면금지 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낸 바 있으나 법원은 동시에 예배에 30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하만 참석 가능(즉 전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명까지만 참석 가능) 하는 즉 20명 미만이라고 결정하고 규도를 무한한 편의주의 방식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예배회복의 결의를 다졌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이날 고문에 위촉된 정병대 목사(영남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정 목사는 창 22: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작은 수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해 주신다. 우리가 과거에는 때때로 어려움 행위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행정부와 과학적 근거 없는 예배 탄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시총회 후 교회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는 예자연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낭독한 이 성명에서 '교회와 정체를 결집할 시 종교기관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체를 시행한다', '종교기관과 논의시 그 동안 진정적인 성격의 단체들과 협력하지 말라',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가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손 목사는 이어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순응하며 예배의 자유를 감내했다. 그러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까지도 교회가 수용하면서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는 현상은 목도해왔다"며 "다시는 이 땅에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에 예자연은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안이 선동을 하고 교 회만 차별하여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 어나 전국적인 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 다"고 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강력히 반대

평등법은 입법독재, 법률 통한 전체주의적 혁명

전국 3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전교모)'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월 19일(월) 발표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현행 헌법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음에도, 어떤 법보다 상위 개념을 가지며 하고 있다. 평등법 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한다고 요구한다'며 '평등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평등법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독재이며, 법률을 통한 전체주의적 혁명'이라고 성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2020년 6월 24일 정당 간합성 의원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전국 3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전교모)'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여 학력을 이유로 급여에 차이를 두거나 승진

나 배치에서 다른 대우를 하던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학위 취득보다 많은 급여를 받거나 좋은 지위에 배치될만은 차별이 된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성, 재능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에 달 리한다고 함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 다'고 발표하여 학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한 반대하였다.

또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였다. 평등법 제2조에는 '고용 등 고용형태'로 차별금지 사유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기령은 차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한다면 고용형태를 차별하는 안 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처, 중혼, 근친혼 등을 일부 일체 혼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고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차별이 된다.

2면으로 이어짐

한기보협, 제36차 제1회 임시총회

제34대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 선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7월 2일(금) 오전 11시 서울 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본부 비전 센터에서 회합교단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박영호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박영민 목사(선원위 서기)의 사회로 임준재 목사(예정 개혁회)의 기도, 박정식 목사(여주감리회)의 성경봉독, 박형철 목사(고교신학회의)의 단문 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선원위를 사 모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에 이어 이철회 목사(예정합동보수)의 헌금기도,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전진열 목사(중부서회)의 축사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는 선거위원장 박형철 목사의 사회로 임준재 목사의 기도에 이어 선거위원회 박영민 목사(서기)의 회임령 후 회임 30명 중 참석 22명, 위임 3명, 불참 9명으로 회의를



개회했다.

회의는 임시회의목서기 2명 선출 및 흡석 사절위원 2명 지명 후, 대표회장 후보자 정권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표회장 선거는 2명의 후보 중 선거인 1명이 불참한 선인으로 인해 박수호 박영호 목사를 제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신임대표회장 당선증 교부, 신임대

표회장의 인사발령 후 신임회장의 축사로 총회를 마쳤다.

박영호 신임대표회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한기보협 1대 회장 한영철 목사는 기복한 씨, 반기, 2대 노현진 목사는 그루터기, 상수리나무"라고 비유하며, "보수교단협의회를 정통신앙을 바탕으로 정직한 신앙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비대면 예배는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 아냐

한교총, "방역당국은 종교단체의 목소리 들어달라"

한국교회총연합(당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정종현 목사)이 한교총이 지난 7월 17일(토) 비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쟁을 발표했다.

서울형성교회 평성11부는 지난 7월 16일(금)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가 4대까지 시행되고 가운데 종교시설을 억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 부분에 대하여 허용판유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한교총은 성서서를 통해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냐를 주장했으며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첫 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제한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규모와 신원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종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어 "다만, 방역 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따라서 이번 법원의 4대까지 존중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에 '비대면'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수 헌정', 또는 '제한적'이라는 호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한교총은 끝으로 "법원은 금년 4대까지 예배를 금지한 것의 생생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우 모이는 정구 집회에 대하여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라며,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 해가 법원이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대까지 미만을 예배로 제한하는 것은 10%의 정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음료금지는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총 창립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에 정서영 목사 선임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명훈 목사, 사무총장 신명수 목사는 지난 7월 15일(목) 세기총 회의실에서 제2차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안건을 논의했다.

세기총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에 중장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부위원장에 세기총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를 선임하는 등 임원을 승선했다.

동상대·동상대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공동주최 및 주간의 건은 사무총장이 경로를 설명했으며, 한국교회-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와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으나 조식을 확대해 교회

연합단체협의회, 한교연, 한기총 등) 전체가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19일, 노보텔엠베서터 강남호텔에서 예정됐던 동상대-동상대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는 코로나-19 방역 4대까지 발표됨으로 무기한 연기됐음을 보고했다.

이어 기가 안전으로 코로나 방역 4대까지 안전 전 교회의 비대면 예배 실시와 관련해서 교회 여러 단체들의 논쟁과 성서서 발표에 대해 이우원을 표하며 세기총 만이라도 성경적인 예배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 세기총의 입장을 성명서로 알리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진행하기로 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항고심 모두 기각

이철 감독회장, "교단 안정과 미래 위해 힘써 터"

서울고등법원 제3-23(사부)는 지난 7월 6일(목) 오후 기속고등법원(이하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항고심 2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07.06(목) 직무정지 처분 기각(사부)는 지난 7월 6일(목) 오후 기속고등법원(이하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항고심 2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07.06(목) 직무정지 처분 기각(사부)는 지난 7월 6일(목) 오후 기속고등법원(이하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항고심 2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는 이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문

제가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며 비주변 선거 관자의 선거 관리절차에 대한 주장 역시 전체 선거관리의 4% 정도로서 이들이 실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재투자에게 투표했다면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이로 인해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으로 선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감독회장 선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감리교회를 더욱더 안정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 같고,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재판에 대한 불안정한 역시 큰 변동사항 없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철 감독회장은 교단 내 재판에 서로 지난 선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

단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고등법원 기각판 결정으로 감리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이렇고 가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감리교회 안정과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재판까지 말하며 정지된다고 한 게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 감독회장은 이어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오는 10월 임원선거가 진정으로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판의 빠른 종결을 통해 감리교회에 하루 속히 한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17년째 이어오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성을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에 따라 50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보며, 이에 따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사람의 성별이 XX, XY의 유전자에 의한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학습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미학을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그 오류를 지적받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 해 이루어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사회적 독재이다.

차별에는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정당 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다. 교육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성, 연령, 국적, 장애 등의 선천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차별 구분 상하의 정도가 결정되는 학력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정당한 사람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평등이 학력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다성애(안도) 등의 성적다양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부부 사별과 부모 사별 간의 차이가 할 도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이다.

성인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부부가 아니거나, 동성 간의

나, 여러 사람 사이,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학자판소와 대법원도 그동안 4년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민족 행위라고 결정 한 바 있다.

내오막시즘의 중요한 한 축인 성행위 "인간은 성적 본능이 충족되어야 할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윤리도덕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성적 본능을 풀 어놓을 때 인간이 행복해 진다는 주장이 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성행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시도는 전 체주의적인 발상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무교육 내용이 이러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성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함 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에 대한 선택과 자신의 성을 바꾸려는 학생들을 이금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면 1차 교육을 이루는 전통 윤리와 도덕이 크게 흔들릴 것이며,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규정 한 차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

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보겠다는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헌법적권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차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다.

평등법은 헌법 헌법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보다 상위적인 개념을 가져다 하고 있다. 평등법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약과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평등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평등법에 맞추어 고쳐야 하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독재이며, 법률을 통한 전체주의적 책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권정책기반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사법체제를 바꾸려는 음모론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하는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1.7.1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성연, 제12회 임원수련회 개최

회원교단 간 친목과 상호결속 다져

한국성경교회연합회 제12회 임원수련회가 지난 7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신학교 교수부부 제2회 여름수양회



제2회 여름성 공주신학교교수부부 여름 수양회가 지난 7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경남 신항한강기독교복합단지에서 있었다.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수들의 일차원 성경 해석과 교단교리를 바탕으로 신학생들을 교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19일 첫 번째 시간은 김영인 교수(총장) 회장이 여주교대한하나님의교회 신조 관 제목으로 알미안과 칼빈을 비교한 강의인 '강의로 우리의 소수를 분명히 했다'.

20일(화) 오전 시간에는 최정식 교수(본 교 학장)가 '선교의 관점에서 본 WCC, WEA, NCC'라는 주제로 WCC의 태도와 그 배후적 프라메이션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포용을 목적으로 탄생한 WEA에 관 해 강의했다. WEA는 창조론을 부정하며 진 화론을 주장하고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WCC 기틀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포용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WCC에 속한 여정통기독교회가 풀고 있는 생명과 정체성의 정면대항하고 있는 NCC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교수들이 일차원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신학생들을 교수하고자 정 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들이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왕성열 목사(본교 이사장)의 기도 1박2일간의 수양회 를 마쳤다.



강원동·서지방회 통합감사예배 드려

강원도지역 동과 서지방회가 강원지방회로 하나

강원지방회

교단 강원도지역 동과 서지방회가 강원 지방회로 하나가 되었다. 강원동·서지방회는 양지방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 지와 찬성으로 지난 4월 20일(화) 전격적으로 통합을 이루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통합감사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쳐오던 중 지난 7월 19일(월) 영일 열 린교회(담임 유영열 목사)에서 통합감사예 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강원동·서 양지방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강원지방회 통합감사예 배는 지방회 총무 이상은 목사(인보교회)의 사 회로 시작되어 총회장 임기호 목사(원영교 회)의 대기도로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중흥 총회장 이재재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이재재 목사는 롬 1:9-10 말씀을 본문으 로 '누가 나의 종이?'를 묻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너들은 시대이지만 세상의 환경 을 바라보다 말고 비율과 같이 주님을 바라 보고 아브라함이 독자 아삭을 바친 것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이 될 것'을 당부하고 '지방회 모든 목회자 들이 하나 되어 교단의 모범이 되어 하나 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강조했다.

교단 중흥총회장 전동은 목사(은양은혜 외전교회)는 축사를 통해 강원 지역의 두 지방회가 통합하여 하나 되기를 기대하

는 축사를 전했다.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방회 통합과정을 설명하고 기도를 당부한 뒤 총회장교회 박성용 목사의 축도

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 박순용 목사는 영원국기독교연합회장에 선출된 열 린교회 유영열 목사에게 성경과 기념품을 증 정하고 신임지방회임원들을 소개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방여수직을 할지자 지인 가운데 인근 신당으로 분산하여 사치를 한 뒤 모든 임정을 마무리했다.

회장 박순용 목사, 부회장 박성용 목사, 총무 이상은 목사, 서기 박규희 목사, 회계 정 우영 목사, 재무 김중재 목사

포커스 - 대면예배금지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면예배금지 집행정지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시행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 라고 강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서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 교회들이 신청한 집 행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면 서, 위법임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 우찬)에서는 10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 부(재판장 송승우)는 17일, 기독교예배 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소속 교회들-대표 김진환 목사 김승규 장로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4단계 수 직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사 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직은 비대면 예 배(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있는 바, 소규 모 종교기관(인민교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역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

럼, 물리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 배(비대면예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에는 대면예배(비대면예배)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 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가 마치 '교회'를 코로나 확산 의 전파지점으로 대하고, 일방적으로 교회 를 집정적으로 폐쇄하는 강제 행위는 사 법부에서 판단한 대로, 행정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전체 수용인원을 2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방여수직이 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곳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 에서는 재판에 참여한 교회만을 인정한다 고 한 것도 문제이다.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교회는 서울을 16교회, 경기도가 14교회인데,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동 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그 동안 종교시설에만 폐쇄에 준하는 '비대면'으로 강제된 것에 대하여 보정할 사죄해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 교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교계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말고, 정부 스 로 행정성과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 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오랑(575)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거 를 바란다.

한국교회도 위법(憲法)한 정부의 병형 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나 른 선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 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 하여 하나가 되며, 예배의 본질을 무너트 리려는 사탄의 회(會)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헌원회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 7월 6일(화) 오전 11시 군산 꿈이있는교회 (담임 김준배 목사)에서 열려왔을 것으로 교단 과 지방회와 교회부흥을 위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총무 김원배 목사(꿈이있는교 회)의 사회로 고동봉 전도사(새벽별교회)의 기도, 회장 고현진 목사(새벽별교회)의 빌 3: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 안에서 기뻐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 기운 데 자주 짜증이 나고 신장감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옥 안에서든 주님 안에서 기뻐



하라고 말하였던 바울사도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닌 주님 안 에서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2부 열려왔을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의 인

도로 개회되어 각종 회무처리를 은혜롭게 마치고 꿈이있는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 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장지 로 돌아갔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물습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 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잘했 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 가요? 10-1=0입니다.

짐을 지으려면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 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다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화복, 흥망성쇠로 인해 회로에러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백함을 받은 제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므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유희되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 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 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 람 한 사람이 양 강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성한 집을 지어가시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정복 목사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회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보부위 군에 여백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 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 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 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 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 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 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 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 에게 평안과 위로,安心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성경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 이프, CQ 책 등 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 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 계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 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 의 마음으로 책거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 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 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 생명의 말씀 ■



이건호 목사

· 월계교회교회 위임목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자 모세의 인도에 따라 그라운 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결같은 부지런히 갈아가는 때에 바알산 밋은 밋 비록 하룻 바다가에서 정박을 하고 하루 밤 쉬고 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곳은 양쪽으로는 높은 산이 가로막히고 앞에는 철쭉가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으로 부려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보니 다시 자신이 생자 비로 왕이 직접 인솔하고 달려오는 애굽군대에 우렁찬 함성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출 14:7 "특별 방벽 유박속과 애굽의 모든 방벽을 발하니 장군들이 다기는 듯하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해결의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와의 행하는 구원을 보기 위하여 가만히 있었으셨었습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שראל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비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뒤 돌아보고 큰 두려움으로 비워되었습니다. 그들은 열 가지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비로의 일체 하에서 출애굽 시킨지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불신앙 상태로 되돌아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뒤돌아보는 행위는 신학에 원인이 됩니다.

창 19:36 "뜻의 아내를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욥 9:22 "여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땅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탓으로 하지 않고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 하실지 "여호와와의 행하는 구원을 보기 위하여 가만히 있었으"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의 행할 바이므로 이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대와 역경을 만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활동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셋째로 그대와 역경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출 14:15-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하여 내게 부르짖노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평을 돌고 손과 배 위로 내릴 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 중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하여 그대에게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들을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므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가 끝나고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이광림을 받는 과정 속이 원망과 불평으로 여정을 보낸 우리들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로수아와 갈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열 무명의 정탐꾼 속이 열 명이 그러했으며 소동상에 못과 두 팔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 하였습니다. 못의 처 역시 불신앙으로 탐미하여 소금기 땅으로 남겨 되었습니다. 노아시대에 는 아의 여덟 식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 48:10-11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태워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를 아를 것이라 이제 내 이름을 옥대하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총상하신 여대분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태환을 받은 분들입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 48:11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리라"고 약속 하였으니 죄로나 유죄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승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께 배대령 추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아닐 행사가 참한 주요 인사로는 대한기독교서회 사장을 지낸 장지강 목사, 전 N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총장회 전 총무 윤갑수 목사, 전 NCK 회장과 세계성공회 종교간 대화 협의회 공동회장을 지낸 김근상 주교 전 서울신대 총장 유석성 목사, 연세대 수필가 문신진 서대문구청장 등 30~40여 명이다.

고 박원순 전 시장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과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공감과 반성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생각하며 그를 그리고 예수님과 견주어 높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독교 지도자의 극심한 타락으로 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언제 예수님이 불이한 권력자들과 전쟁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는 차지(田疇)하고 미화하는 것을 가르치셨는가?

동 정

기독교 미디어 예술 해외에 공유



자제한국에 학교를 짓는 기독교 NGO 드림드림(대표 임재중)이 지난 7월 24일(토) 국내 기독교 미디어 예술 기술을 캄보디아에 공유하는 '스마트 미디어 아트스쿨 캄보디아'를 열었다. 이 캠프는 국내 교회 미디어 아트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캄보디아어로 현장 통역해서 유튜브와 비대면 화상 플랫폼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회장 방효성)가 8월 4일(수)~9일(월) 서울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제56회 정기전을 연다. '코이노니아(교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전은 회원 130여 명이 서양화, 한국화, 조소,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으로 참여하며 개막식은 4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한남대, 신정호 이사장 취임식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교대학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7월 20일(화) 대전 한남대 성직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식에서 제22대 이사장에 신정호 예장 통합 총회장(전 주동신교회)이 취임하고, 제22대 우영수 이사장이 이임했다. 이·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했다.

이정훈 교수, 19명 한창예배 안돼



이정훈 교수(울산대, 영정예배연구원장)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20명 미만 한창예배 허용 결정(일부 승소)은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23일(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게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평

한국교회연회

기독교 지도자의 타락, 아무데나 추모기도회인가?

최근 교계의 왜 알려진 진보 측 일부 목사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모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7월 9일 한국기독교총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기리는 기독교인 모임의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1주기를 맞아 추모기도회를 가졌다.

이 추모회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서울시청에 의한 위력(威력) 성폭력 고발 1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추모하는 이름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이류메니칼 원로들을 규탄한다"는 정복사위가 있었지만, 끝내 행사가 진행되었다.

*추모(追慕)는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대하고 잊지 않음'을 말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부친 성고로 사

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로 '성희롱'을 변호가 뒤돌아왔던 당사자이다.

그렇게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던 당사자가 서울시장 재직 시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도 아닌데 예배 형식을 띤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가당한 것인가? 또 모교에서는 '박 전 시장을 생각하면서, 박원순이 갔던 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사물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고 했다. 마치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원순 박원도 비유도 비교도바당도 너무 지나친다.

최근에 "박원순은 살아 있다"(문자: 나

연준 여 명 우영수 이준호 이윤남 이종원 주한규 허현준 김재원이라는 책이 나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8월 7개월, 3180 일의 대한 시장(市政)을 나름대로 평가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중 주무, 도시개발, 토목건설, 교통노동, 여성정책, 에너지, 보건교육, 조직인사, 정부, 정책 홍보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가들이 엄밀히 평가한 내용이다.

이 책은 박 전 시장의 시장에 대하여 어떻게 총평한다.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표적 업적은 떠오르지 않는다. 서울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거나 큰 공로에 비해 미치지 못했다. 정책과 예산, 인사 분야 등에서 포

플리드므로 유혹하거나 좌파적 동향의 실현 대상으로 삼거나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지지 구속에 활용하거나, 코딩인사를 남용하거나, 대권 행보를 위한 지지층 결속에 열성을 쏟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대안에게 기복한 반면 자신에게만 관대한 위선(僞善)'이라고 이종직 행동 등의 부정적 요인이 끼친 해라고 크다. 타인의 병역문제는 공적하면서 자신의 병역문제는 '민병적'이라고 변명하거나, 타인의 학력 허위치는 문제이지만, 자신의 학력 부풀리는 줄만가 한 일이라고 해명하거나, 다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다기관에 협력과 기부금 후원을 요청하는 등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고

www.c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현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사관령의 증경회장 한경덕 부사와 고연명 부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양산동(스탠다드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온돌/단체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로길로 479번길 43

확진자 없는 교회에 또다시 책임 전가

방역수칙 준수하되 예배 금지 행정명령 굴복할 수 없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재섭 목사, 아라 한교회는 지난 7월 23일(토) 성령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교회는 이 성령에서 "서울시와 구청이 일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통보만 내린 상태"라 지시해 불응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성령서 전문이다.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다"

서울시와 구청이 일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통보만 내린 상태"라 지시해 불응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불의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 운운하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에 물고지 한다. 과연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민주 국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감염예방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압 제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다.

한해 경제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코로나 확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함에 빠뜨린 행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는 법이 아닌 권력, 행정 조치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도심 한복판에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천여 명이 모여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보수단체, 보수 기독교를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토록 확연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편은 다 괜찮고 내 편은 '실질적'로 물이 자와와 혐오의 씨앗을 퍼뜨려온 선택적 방역의 결과가 오는 코로나 19 대책상의 민초가 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진정논리에 좌우되는 편향적 방역의 대상자의 책임을 그동안 모든 고충과 희생을 견뎌온 한국교회에 탓하기우리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한다.

여언에 파병된 문무대원할 함 내에서 전체 승조원의 90퍼센트인 27명이 집단 확진됐다. 이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감염 확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누구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이들 장병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충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철도역 신도장을 보내 방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어둡아져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죄를 했다. 이는 정부와 방역 수칙이 수반 불위의 만능도 아니고 최방책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런데도 있던 방역 참사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애초는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하라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한편 제2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감염병 예방법' 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없이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잉 법집행이며 위헌이다.

우리는 일부 교회에 대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만으로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등과 임행정조치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교 기독교계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기관이 이 같은 종교탄압에 가까운 과잉 행정조치에 대해 엄중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나와 상관없는 일적으로 여기는 현상을 묵도하며,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목회자의 개인 일방행위인가. 한국교회 전체의 사명이기에 문제가 아닌가?

한국교회 및 침례교회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곳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매년 한국 교회에 마치 공동체성을 상실한 바이성적 집단인 양 매도당하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민간인"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목숨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다" (속 19:40)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연상케 한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 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1. 7. 2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재섭 목사

현재의 시간

엔택트 시대의 크리스천 가치관 수업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크리스천 인문학!



저자 장재환 목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곧 하나님의 삶이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을 열매 이전에 수고를, 사랑 이전에 희생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수고 없이 열매를, 희생 없이 사랑하려고 한다. 그러한 인간의 삶은 곧 사탄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예수님이 곧 인문학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배우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살이란 무엇을 삼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좇아 의와 화평과 화평과 사랑을 심을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화평과 사랑이라는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일은 잘 먹고 잘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세대들은 말한다. 적어도 15년 후 가장 큰 경쟁력은 정서적 안정과 지적인력 맨날 과외를 받아 열심히 배운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분개 아니라 자라면서 깨달아 할 품성의 분개이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을 세워야 이룰 때부터 실현하게 해야 세워지는 덕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덕목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셔서 어른과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치와 성품에 대해 서로 아이를 나누어보길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실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아름다운 가치는 빛을 발한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날, 우리 아이들이 때문에 미레가 좀더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이 책은 48가지 주제의 묵상 말씀과 주제가 함축된 성경구절, 그리고 성화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딱딱하고 원론적인 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인들의 일화들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아이기들을 예로 들어 읽고 재미있게 읽힌다.

아무췌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엔택트' 시대의 크리스천 가치관 수업을 함께 읽고 나누는 통해, 일상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또한 이 책이 신앙교육의 현상인 교회학교에서 신앙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쓰여진 나.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됨으로써 예수님의 참 뜻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장재환 목사 | 대경북스

150*215mm 상판(256), 하판(240), 부록(200)

세트장가 28,000원 발행일 2021년 6월 15일

구입문의 02)485-1988

살롱 나비 논평

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왔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 헌법 전문은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근간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존중하며 다 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3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살펴본다는 지난 4년 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인민주주의로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수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치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이다.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부패를 막아주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를 사해하고 그 자리에 인민주주의를 불로 시한 바 있고, 여러가지 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정후19년 국민총소득이 67천달러의 원년 후 현재로서 2023년 3만 달러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

것의 혜택을 향했 누려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신실안에서 생활하며 감염 확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누구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이들 장병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 자 존엄성을 갖는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진 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한 정도도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아성이나 양심 등과 같은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 나이별 성에 따라 관용하게 집행되고 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권 유린의 정권을 지체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적 침묵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제재(制裁)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권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아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커다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가하는 사태 때문에 일벌백제라는 과당한 논리로 덮고 있다. 시판된 채가 북한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신상과 장제에 정교한 비호는 대한국인 발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

3.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 권력의 속성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정파의 이익 중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이나 정파를 대표하는 정치자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맥켄(Adam Smith) 지적한 대로, "모든 부패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반드시 간섭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전제된 제 민주주의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정치 행태가 뛰어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나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권력 행세를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나리의 관습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코 민주주의의 자라아 할 수 없다.

5.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식 법치주의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정치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면 국민은 불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가진 부패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신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윤리적 양이 땅에 살아게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 규범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이루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원리 조건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코 법리라고 진정과 양심이 따라 행동하는 법치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를 구원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재산이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서 개인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종량부담금세라는 이

념으로 과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이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치 규제조치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 차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6.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공평과 정의에서 벗어났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실현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념과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수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였다. 검찰개혁을 전방적으로 수습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의 고위 관원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관료자수사처를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로 신설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습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해임시키고 검찰에 관행된 검사들을 단지 정부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인내나 공평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원칙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검찰개혁 정책은 공평과 정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것이다. 헌법상에서 선한 기풍은 평등하고 공평한 공평한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7.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93조의 정제성을 허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양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 직책의 알파와 오메가다. 현 대통령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후보 가운데 국민이 잘못된 후보는 국민들이 예비선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감성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근근을 허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책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할 올바른 자유민주 정신을 지닌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해 예민한 적시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낳으셨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아가게 하는 사역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지탱해 주는 사역이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제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21년 7월 17일

살롱 나비 논평
기독교인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교단공과 신청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이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이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이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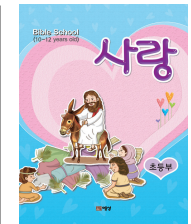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동원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봉사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중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석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대전교계, 광복절에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

대전시기독교연합회가 1500교회에 메시지 작성해 전달키로

대전시기독교회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21일(수) 긴급대회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15일 이 지역 1,500여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안 반대 설교를 전하는 동시에 전국기도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시사회운동본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기독교연합회와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각 교단별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재진 교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희재 대불미인 주임의원의 차별금지법 반대 뜻을 강조했다.

대전시종종교연합회장 오종영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예외의 가자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 (평등법안)을 발의한 이삼민 의원은 지역민의 뜻을 받들고 목회자의 뜻을 존중해, 강경방지를 말고 자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 오종영 목사는 "평등법 발의 의의 있는 자사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대전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함께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기발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성소수자나 동성애 의무교육 등의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이라며 "교회들이 연합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시사회운동본부 박정복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재진 교수는 "이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제법적 근거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전체주의적인 입법이다.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사회를 해체해놓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불미인주임 김희재 목사의 사회로 "여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반대하니 '당의 정책성과 맞지 않다', '왜 이 당에 있느냐'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도 많다.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종영 목사는 임원대회의 회의 끝에 5가지 대응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첫째, 8월 15일 주일에는 대전 지역 1,500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메시지를 선포로 할 것(백신 메시지는 연합회에서 작성해 전달).

둘째, 8월 15일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목사 전로 광복절 전국기도회 개최.

셋째, 각 교회별로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거치하도록 할 것.

넷째,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점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나눠 줄 것.

다섯째, 대전 지역 교회들을 통해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할 것.

한편 교단별로 김성현 목사(통합), 임정목 목사(합동), 이삼구 목사(기감), 김명원 목사(백성)가 발표했다. 대전시종종교연합회 박재진 목사의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1회 전북극동포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초청 포럼 개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 주제로 차별금지법 다뤄

전북극동포럼회장 홍요셉이 지난 7월 10일(수) 이천시평교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강사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평등법 발의 등 사회 이슈에 대해 기독교 관점에서 안 전 헌법재판관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보'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같지만 그 속에는 큰 위기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름다운 전통문화와 도덕관을 해무는 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도 주목한 안 전 헌법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신학교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엄청난 법적 재앙이 들어올 것이다. 이단을 비판하는 것조차 법에 위배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성경의 무오무침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위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며, 창조와 질서와 질서에 대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성애자가 신학교를 지원했다가 교회 담임목사로 지명됐을 경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



로 이들의 입학이나 취임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교회가 진리를 전리라고 외치지 못할 시간이 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들은 상당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 실현된다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면 큰 재제를 받게 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결

으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외치지만 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는 성관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포럼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형식을 노린 성관계가 여자와 성관계에 들어가서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쟁점이 없다. 또한 남자 축구선수가 '나는 여자'라 하며 여자축구선수단으로 옮기면 형평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공인대를 앞두고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면 면제를 해야 하는가"라며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아이즈의 확산도 더 심각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장래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법을 이르면 3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500만 원 이상의 장래적 배상도 요구된다. 만약 집단소송이 이뤄진다면 고발한 인 원수만큼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무엇을 강행할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이 처음 개최된 전북극동포럼은 지역 정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했으며,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재진 목사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릴 기회를 마련한 시간이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생명나눔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이 움직인다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溫)택트 1기 수료식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태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7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에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溫)택트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화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방식(Zoom)으로 진행됐다.

앞서 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17세~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溫)택트 1기'를 모집했고, 평소 장기기증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8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 그 중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생환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15명의 학생을 선발해 '온택트 1기'가 출범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한 '온(溫)택트 1기'는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알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특히 매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과 장기기증에 대한 FAQ 등 정보성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날인 'Red-day' 캠페인을 알리는 일을 통해 장기기증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덕분에 지난 두 달간 '온택트 1기'를 통해 업로드된 장기기증 콘텐츠는 2백여 개에 달하며, 해당 게시물에 관심을 표하는 '좋아요'의 개수는 28여 개를 훌쩍 넘어섰다.

신간 안내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이다. 뜻이 선택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작아 보이지만 평안과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길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 바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갈릴갈에는 넓은 길들이 있듯이 믿음은 지키는 길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아뢰시라니 길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 그때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크리스천이거나 혹은 아직 침례도 받지 못한 크리스천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 : 조진환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리노

발행일 : 2021-07-21 | (140*205)mm 340p | 판매가 : 18,000원

무명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무명의 시간을 겪는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한 없이 무명의 시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시간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그 시간을 무명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위대한 선지자들도 배제없이 겪었던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이려면 반드시 겪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무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한 시간인 것이다. 만약 지금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좌절과 절망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바란다.

저자 : 김철민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07-19 | (132*210)mm 280p | 판매가 : 15,000원

하나님의 소원



20여 년 동안 미국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목회하면서 매우 강단에 섰던 믿음을 엮은 책이다. 목회는 하나님에게 전히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 저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설교는 언제나 성서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한 길고 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선포한 것이다. 성서적이고 실제적인 그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 (달전 2-4-7)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통 8-1-5)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자유 (갈 5-1) 복종점을 지키라 (골 3:14-17)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롬 1:24-27) 회개와 회개와 능력 (골 2:10-15)와

저자 : 조진환 | 출판사 : 루터출판사

발행일 : 2021-07-20 | (152*223)mm 양장 320p | 판매가 : 14,000원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복음은 단지 비잔티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는 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지금-그때'의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이 '가짜'에 가짜를 구별하고 '비밀'에 가짜를 감지하는 영적 감성을 가진 자, '현제'에 발하는 능력과 유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과연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돕는가? 우리는 복음이 직장과 주일과 학교, 침실, 주차장, 심지어 차안에서도 능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복음의 능력만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 사역, 시스템, 사람 등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저자/역자 : 폴 트립티모시 레인/김준수 외 | 출판사 : 생명사랑출판사

발행일 : 2021-07-20 | (150*215)mm 408p | 판매가 : 23,000원

월드비전, 후랭키 화백과 업무 협약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가인 '후랭키(배현성)' 화백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월드비전은 지난 7월 10일(수) 월드비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 및 위촉식을 통해 후랭키 화백과 글로벌 워딩 프로젝트 및 국내외 후원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랭키 화백은 일찍이 한국 화가 작품 초기에 사대의 포문을 열어 국내외 미술계에 강력한 존재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시간으로 지난 20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경매에서 NFT 시리즈 작품이 약 50만 달러(한화 약 58억)에 낙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시대를 깨우는 직관과 통찰을 지닌 아티스트이자 K-ART의 선봉장'으로 높은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후랭키 화백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후랭키 화백에게 후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월드비전 '후랭키 펀드'를 조성해 전 세계 취약 아동들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도 전개할 예정이다.

후랭키 화백은 이날 위촉식에서 "성숙한 삶이라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예술과 나눔 활동을 통해 현실의 제약으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형상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장점을 개척하는 후랭키 화백의 영향력처럼 이번 만남이 국내 일상 속 기부 문화 정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정홍열 교수, 아신대학교 11대 총장에

학교명 변경 학부제 전면개편 새로운 도약 위한 발걸음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지난 7월 20일 (화) 열린 제148회 이사회에서 아신대학교(이하 'ACTS') 제11대 총장으로 정홍열 교수를 선임(임기 2021. 7월 ~ 2025. 7월)했다. 그리고 정홍열 총장은 선임과 동시에 학교의 업무를 시작했다.

정홍열 총장은 선임 이사에서 '제가 ACTS의 교수로 24년째 되는 올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락으로 매우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신학대학으로서 우리 학교가 넘어야 할 고지는 더 높고 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어렵다 해도 우리 액츠 가족들이 믿음과 힘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교인과 직원, 학생과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기도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1대부터 현재로 큰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하나 함께서 이겨내는 버팀목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남지 못할 파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원리의 실행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ACTS를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과 졸업한 동문



들에게 우리 학교는 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계속해서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기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새로운 ACTS를 향한 걸음을 아련함과 함께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분들의 사랑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진심어린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신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설립목적에 달성하고자 최근 학교명을 변경하고 학부제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 꾸준히 재능기부

배우 한채아,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특별나눔

SBS 새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유쾌하고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배우 한채아 씨가 특별한 나눔에 앞장섰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4차 장기기증 희망등록>이시장 박진파, 이하 운동본부 '선행이웃' 표지 촬영과 인터뷰에 배우 한채아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것.

'선행이웃'은 장기기증인과 가족, 그리고 아식인들의 감동적인 나눔 이야기를 담은 잡지로,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미담을 전하고 있는 홍보매체이다.

한채아 씨는 2014년 tvN 공익파라이머티 프로그램 <수상한 동창회 투게더> MC를 맡았을 때 '선행이웃' 릴레이' 편을 진행하며 장기기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운동본부에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이후 그녀는 직접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생애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금품들을 적극적으로 해산해주는 등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운동본부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날인 'Rose DDonor Family-day' 캠페인에 참여하며, SNS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구한 6천여 명의 뇌사 장기기증인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너페달리들의 소중한 나눔을 기억하겠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을 존경한다"는 등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달았다.

선행이웃 인터뷰에서 한채아 씨는 "만 두 살인 딸이 아이 붓아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며 "최근 'Rose D-day'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 역시 가족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 용기를 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아식 대가족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끝으로 '말 붓아'가 장기기증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생명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앞으로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채아 씨의 생애나눔 이야기가 담긴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운동본부 홈페이지(www.dono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랜만에 SBS 새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로 복귀한 한채아 씨는 올 하반기 방영될 KBS 드라마 <연모>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기아대책, “여름방학 사각지대 메운다”

여름방학 취약 아동 지원 캠페인 '2021 여름을 부탁해' 실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정영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취약 가정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021 여름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22일 밝혔다.

'여름을 부탁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학 시즌마다 불거지는 취약 가정 아동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기아대책의 아동 지원 캠페인이다. 기아대책은 지난해 이어 이번 여름방학에도 ▲학습 ▲결식 ▲돌봄 ▲심리 총 네 개 영역의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 가정 아동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기아대책이 지난 4월 공개한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온라인 학습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약 가정 아동 10명 중 4명(41.1%)은 비대면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47.6%는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학습 격차 및 학습부진(학습기, 쓰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학습 격차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읽기·쓰기에 어려움을 지닌 취약아동에게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한글이 놀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한글이 놀자'는 현지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의 '배움전환아동연구회(대표 김중환)'와 협력해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한글이 놀자'는 기아대책의 지역아동센터인 '행복한꿈스쿨' 3개소의 아동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주 2회씩 총 20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위기가정 아동 심리치료비 후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우연)가 배우 이민호 팬클럽 '디시인사이드미노갤러리'로부터 위기가정 아동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어려운 형편의 민중이(가정, 8세)가 꼭 필요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시인사이드미노갤러리는 2016년부터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계 아동 유유 지원, 위기가정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온정의 손길을 아끼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민중이(가정)는 연이 발발이 늦고 학교에서도 수업 중 갑작스러운 튀어나가는 등 돌발 행동이 잦았다. 이에 적절한 심리치료

및 식구 생활비 마련도 쉽지 않아 치료를 시작할 수 없었다.

다행히 정부 배우자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민중이(가정)의 언어 발달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채아 민중이(가정)는 민중이(가정) 뿐만 아니라 동생인 상민이도 언어 발달 지연으로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마네칼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gargle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생령영은 삶을 살아가기 기쁘시요 귀한 세트전도 간증분들을 옮기면서, 병행하는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오직 전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전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무신론자였던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10분 만에 회개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시지만 매일 기도한 결과 부모님께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인데도 꽤 저렴하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딸이 기도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감동적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께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제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기쁘게 주시기도 하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더 이상이나가 꿈이었는데, 마케팅 업무와 함께 병행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을 도맡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며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루가 멀다 느껴졌던 우울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강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 닥치든지 꼭 붙잡

고 감동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 성도님들, 전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 한 명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박영수 목사님 같이 항상 성령님 동행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울 만큼 활발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주셨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저할 수 있는 것은 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전폭 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 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순한 형상 앞에서 일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내순복음교회 청년부 한승기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강도 남양수 평내동 121-1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202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청도수양관 전경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상규 박사
부산에식교회수
교신대학원 명예교수강양인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정기영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이사장
부산지방법원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한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일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청도수양관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전화문의 051) 731-4202)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 학장 한명점 목사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교회 편지

하루에 한 발자국씩...



믿음은 절대로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순간적 일이에요.
옛사람인 내가 겉사람을 벗어내고
새사람이 되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려면
하루치 주신 만나 먹고
하루치 분량 은혜 누릴 때
그때야 엄청난 한발자국을 내딛는 거죠.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의 자녀 된 그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들은 강력한 진을 구축하며
'내일이 있다...' 오늘날 날이냐고...'
하루치 은혜를 빼앗으려고
여러 사람 여러 상황 불화살을 쏘아대니
하루를 승리함은 엄청난 한발자국 내딛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치 분량
벼락치기 계산법은 통하지 않아요.
무시하면 안되는 그 하루 안에서
주님의 성실함을 배워 나가며
하루하루 천국을 누릴 때만이
미래의 천국을 확신케 하죠.
하루를 목적처럼 살아야 할 때
반석위에 믿음의 집 세워 가지죠.

구약장 기도회 때 '오늘날 승리함이다
또 내일이 오면 또 오늘날 승리함이다...
이렇게 매일 오늘날 승리하면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
승리가 위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제47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 6:1~3) 주제로

한국CBMC는 8월19~21일 3일간 온라인 라이브
로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 6:1~3)란 주제 아래 제47차 CBMC 한국대회를 개
최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행사
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각별히 70주년을 맞아 과



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대회로 준
비되고 있다.

첫째 날(REMIND)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둘째 날(RESET)에는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
고 새롭게 보충하며, 셋째 날(REBUILD)은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CBMC인의 이야
기를 준비한다.

대회에는 조장민 목사(세이브전교회)와 강동진 목
사(보나눔공동체 대표), 이규 목사(산호아름다운교
회를 비롯해 김하경 대표(이삭토스트), 조사환 대
표(조서함바케팅그룹), 김경민 대표(가인지 캠퍼
스), 이상화 회장(BTB Ventures(株)), 신태길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등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
문인과 실무자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줄 플랫폼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
회는 zoom 통해 전석수 300명이 참가할 수 있고, 7
개의 섹션강의도 zoom으로 진행된다.

사설

역사 왜곡이 점점 도를 더해

제10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사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
니다'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위선과 이중성으로 발라야 된 정권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이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정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 이병희 회장을 꼽는다. 78세로 타계
한 이병희 회장은 기술 세계체제의 국기로 만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든 주인공임을 부인하는 사람
은 거의 없다. 현재 삼성의 글로벌 1위 제품이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세계 등으로 만든 주인공으로
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상
성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세계위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국
가적인 측면에서 걱정스런 일이다. 이러한 때 정치는 점점
이성만 병행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다. 여러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달리는 이재정 경주시장은 미군을 점령하
고 표현하고 소련군을 해방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험
한 발상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국가관이 이러

면정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수할 수 없는 일이다.

진입세관과 미점령군이 합쳐하여 대한민국이 깨끗하
게 출발하지 못했다는데, 그럼 625 이후 미군이 완전 철수
하고 소련군이 들어왔다면 지금처럼 남한이 번영할 수 있
었을까? 덕분에 번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미군 오
리 새끼 취급하며 몰아내려한다면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들어
온 북한은 어떤 번영했을까? 세계 최빈국이 되고 말았다.

최근 인천에서 인천시민이었던 집집을 열었는데 그
집과 집집을 전사했다. 시민들에게 공개한 전사함에서 인
전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무산되었던 몰래서 그렇게 말함/인
전상륙 작전을 비난하는 이런 전사함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금지할 일이다. 역사 왜곡이 점점 도를 더해간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이제는 서해관장까지 들어가는 이때
에 왜 이런 서해관장을 기점으로 정발의 구미가 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정부수석은 역대 이렇게 깨끗하
고 측근 바리 없는 정권은 없었다고 하니 정말 과연 그럴
까. 한미평화를 파괴하고 중국 러시아와 동맹을 하는지
는 것인가?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3:16)

북한 억류 중인 우리 국민, 신속히 구출해야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8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억류되어 있다. 김정숙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준길 선교사와 고현철 씨 등 3명의 탈북자가 그들이
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구출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숙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벌써 8년이 되고 있으며,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도 7년
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6년이 넘었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강제로 억류되면서,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한류'가 번지면서
서, 북한 김정숙은 이를 '한'적인 종래로 비하하였다.
그러면서 양종하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인 억류자들에게
의를 뒤집어쓰고 벌칙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이들을 구출해 내야 한다. 자국민이 자유와 같은 가치에
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78년째를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는 인권변호사 출
신의 '문재인' 자유국이란 말이 있다.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온갖 법률까지 만들라는 나라이다. 그런
데 북한은 자유와 같은 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재빨리 북한의 눈치나 보고 자국민에 대
한 보호를 뒷전으로 돌리는 '북바라기'가 아니라, 국민
을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민바라기'가 되기
바란다. 이제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 강제로 북한에 억류
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는 권력은 곧 국민들에게
배척과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 문: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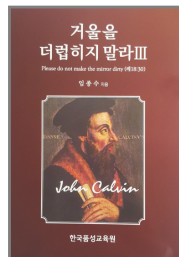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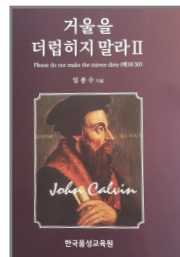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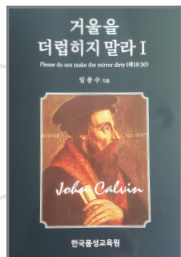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정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따
가려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 2, 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게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분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러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평등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 존속은 공산주의와 대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에 국민 64.6%가 반대하고 찬성이 18%인데 발의한 73명 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게 본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함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고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다운 자유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 발상이 아닌, 법률을 했을 경우 형벌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참다운 자유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아수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원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아야한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영역의 제한이 없어서 학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생활에 직접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부작용 및 폐해 발생의 위험성도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됨으로 인해 국가의 제도가 신 천주주의국가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안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한다.

이상민 의원 등의 평등법안(발의 2021.6.16.)은 양성 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헌법 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으로 평가된다.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 국민들을 기망한다.

이 평등법안은 평등을 부추기면서 실상은 여타의 법령과 조례 등을 성해제, 성해법의 동성에 젠더주의로 바꾸는 초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젠더혁명이다. 이 평등법안의 적용대상은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교육, 기업,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망라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국민들을 현저히 기망하고 있다.

평등법안은 전체주의적 젠더독재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정상이나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괴롭힘이나 차별로 제재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젠더독재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 등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헌법 19조)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10조)를 기필코 수호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15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교회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교단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의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 시위원회서기 목사 김명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석원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세김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교회



지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복음교회

조 직

임 원 단

전 국 지 부 장

예배부장 기쁨교회 조영희 목사	선교부장 동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한빛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순복음교회 김영희 목사	홍보부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림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송계교회 김찬희 목사	기획부장 일신교회 조영민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교회 이영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강원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전라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호남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제주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부산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대구중앙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충청지회 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 국 여 교 역 자 국

국 장 백 영 자 목사